

# 무주,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 부남면 경로당 찾아 티켓 배부

지난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발로 뛰는 행정을 실천하고 있는 부남면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남면에 따르면 부남면 지역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이·미용비 지원 대상자는 총 320명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이 쉽지 않은 어르신들의 사정을 고려해 면장을 비롯한 맞춤형 복지팀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 나섰다.

지난달 말까지 관내 경로당 24곳을

모두 둘러 어르신들을 만난 공무원들은 이·미용권을 직접 전달했으며 사용처를 비롯한 사용방법 등을 안내하고 환절기 건강과 안부를 챙기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무주군 부남면 최라돈 면장은 “날이 추워지면서 자녀 집에 가셨거나 편찮으셔서 요양원 등의 의료시설에 계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달해드렸다”라며 “이·미용권 배부를 기회로 경로당 시설도 둘러보고 어르신들의 안부도 챙길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무주군의 민선 7기 공약 중 하나인 어르신 이·미용권 지원 사업은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기찬 노후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10월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대상자들에게는 무주군 소재 이·미용권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한 이·미용권(1만 원 권)을 분기별로 3매씩 한 해 총 12매가 지원된다.

이·미용권을 받은 어르신들은 “나이 드니까 어두워서 좋은 게 있어도 잘 모를 때가 있다”라며 “직접 와서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도 쉽고 돌아오는 장날에는 읍내 가서 머리 손질도 꼭 받아야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전북세정인 화합 한마당 행사 성료

## 도내세무공무원·가족 등 600여명 참석

전북도 내 세무공무원들의 화합과 발전을 다짐하는 제10회 전북세정인 화합 한마당 행사가 전라북도 세정회(회장 김원태) 주최, 장수군 세정회(회장 이승희)의 주관, 장수군 후원으로 지난 2일 장수군 한누리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도내 도·시·군 세무공무원과 가족 등 600여명을 비롯해 장영수 장수군수, 김종문 장수군의회 의장, 박용근 도의원, 권재민 전라북도 세정과장 및 각 시군 과장과 노조위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내외인사 50여명도 자리를 같이 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이번 행사는 도와 14개 시군을 4개팀으로 나누어 풍선기동 세우기, 줄다리기, 번외경기인 사과길계각기 등 행사와 장기자랑을 펼쳐 화합한마당 축제로 진행됐다.

장영수 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세무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세정인 화합 한마당 행사가 전라북도 세무공무원들의 화합과 정보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세정인 대회는 매년 시군을 순회하면서 열리는 데 2020년에는 임실군에서 열릴 예정이다.

### 지역 매아리

## 진안군,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진안군은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관내 모든 거주(빈집 포함) 및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대책 수립을 위한 통계 작성 기초자료 수집 등을 위해 5년마다 실시한다.

행정자료의 현장 확인을 통해 등록 센서의 품질을 개선하고 2020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를 위한 표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사방법은 2019년 11월 1일 0시 기준으로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면접 형식으로 진행한다. 조사항목은 상세주소, 거주종류, 빈집여부, 거주가능 가구수, 건축년도, 난방시설 등 총 12개 항목이다.

또한 올해 최초로 태블릿PC를 활용한 전자조사를 도입해 통계의 품질은 높이고, 응답자의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국가 주요정책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조사인 만큼 기간 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가정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정보통계팀(063-430-25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43억원 지급

## 진안군, 6일까지

진안군은 영농자금 확보 등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43억원을 6일까지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직불금 지급단가는 1ha당 쌀고정직불금(국비)은 평균 100만원(진흥

안 1,07만6,416원, 진흥 박 807,312원)이며 밭 직불금은 평균 55만원(진흥안 70만2,938원, 진흥 박 527,204원), 조건불리직불금은 평균 52만원이 지급된다. 진안군 직불금 규모는 쌀고정직불금 4,059농가, 3,439ha, 33억이며, 밭 직불금은 3,073농가 1,504ha, 8억원, 조건불리직불금은 662명, 556ha, 1억 8,000만원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 기간 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등록한 경우 직불금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가을 태풍으로 영농에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인 만큼 직불금 지급이 농산물시장 개량과 경영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불 없는 가을 만들기’ 본격 가동

##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운영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산불예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본격적인 가을철 산불방지 대응태세에 돌입한다.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시작으로 관내 5개(무주, 진안, 장수, 남원, 임실) 시·군의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며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약 80여명의 산불대응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배치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 6대의 감시망을 가동해 산불 예방활동 및 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입산자 실화를 막기 위한 입산·등산로 통제구간이 운영되며, 산림에서의 취사 및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농·산촌 소각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 강화로 가해자 검거 및 강력한 처벌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산불예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본격적인 가을철 산불방지 대응태세에 돌입한다.

을 통하여 대국민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일상 속에서

방심으로 산불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산불 예방 활동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장계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가 장계시장상인회가 주관으로 지난 3일 장계전통시장에서 열렸다.

# 장수군 장계전통시장 문화행사 개최

## 떡나누기·다육이 화분만들기 등

장수군 장계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가 장계시장상인회(상인회장 김태용)가 주관으로 지난 3일 장계전통시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장계자율방범대(자율방범대장 곽한욱)가 봉사를 나섰으며 장수오미자차 및 떡나누기, 다육이 화분만들기 등 대형마트에서 경험할 수 없는 전통시장만의 특화된 체험활동을 제공하며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장수군 장계면 시장전변길 28번지에 위치한 장계시장은 1931년 개설


된 역사가 있는 전통시장으로 39개의 점포가 입점하여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해 왔다.

장수군과 장계시장상인회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추진하는 등, 장계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통시장을 물건만 사고 파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